

중간배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김신 SK증권 사장, 脫플라스틱 고고챌린지 동참
 김신 SK증권 사장이 일상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해 '고고챌린지(Go! Go! Challenge)'에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신 사장은 '탄소배출은 줄이GO! 플라스틱 다이어트 실천하GO!' 메시지와 함께 "사회적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K증권



BNK경남은행, 비대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BNK경남은행은 지난 16일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본점 대강당과 실시간 화상서비스를 병행한 이원방식으로 진행했다. 300석 규모의 본점 대강당에는 충분한 거리두기를 위해 80여명의 부점장만 참석하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소관 영업점 등에서 노트북과 태블릿PC를 활용해 비대면 참석했다.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 조춘초서 시장경제캠프
 전북은행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지난 16일 전북 완주군 조춘초등학교를 찾아 '시장경제캠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춘초 6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시장경제캠프는 금융 경제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시장 체험을 통한 구매하기 활동 및 제품 생산, 홍보 및 판매, 결산 보고에 이르기까지 체계화된 체험 놀이로 구성했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쌍방울, 바이애슬론 김승교 선수 후원 계약
 쌍방울이 바이애슬론 러시아 유학파 출신 김승교 선수를 후원한다. 이번 계약 체결로 김승교 선수는 향후 1년간 참가하는 모든 대회에 쌍방울 기업의 로고와 트라이(TRY) 브랜드가 새겨진 모자나 유니폼을 착용하고 출전한다. (오른쪽부터)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 김승교 선수, 김세호 쌍방울 대표이사. /쌍방울 그룹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팀장급 전보 △외교정책팀장 전예진 △건강정책2팀장 김일석

부음

▲이금열씨 별세, 김아롱(카테크 취재부장)씨 모친상=17일, 충남 공주의료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30분, 041-962-1444



**김다연 변호사의
 진정한 외사법**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지만 이 때에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했다면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고 봐야

할까?

상법 제462조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25조 제3호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이익배당을 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배당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을 초과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자본총실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는 데 있다. 판례는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했다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해 이뤄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써,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해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총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대법원은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였다면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10년 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LG전자, 2050년까지 전 사업장 100% 재생에너지 사용

북미법인 올말까지 100% 전환 국내 사업장도 순차 전환 확대

LG전자가 2050년까지 모든 사업장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

앞서 LG전자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탄소배출 규제 강화 정책에 선제 대응하고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다.

18일 LG전자에 따르면 우선 북미법인은 올말까지 생산, 물류,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후 2025년까지 해외 모든 생산법인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국내외 전체 전기사용량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국내 사업장에도 재생에너지 사



LG전자 북미법인 태양광 발전 모습/LG전자

용을 점진적으로 늘려 2030년과 2040년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을 각각 60%, 90% 달성할 계획이다. 2050년에는 LG전자 모든 사업장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를 위해서는 ▲고효율 태양

광 패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 및 사용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Renewable Energy Credit) 구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PPA(전력구매계약) ▲한국전력에 프리미엄 요금을 지불하고 전력을 구매

해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는 녹색 프리미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인도 노이다생산법인은 3.2MW(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했다. 법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태양광 설비를 통해 자체 생산하며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릴 계획이다. 또 해당 프로젝트를 유엔(UN)의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LG전자 안전환경담당 박평구 전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실현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며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BGF복지재단, 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 식사지원

취약층 아동 70여명에
 12종 컵밥 1000기 제공

BGF복지재단이 방학기간 중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에 나선다.

BGF복지재단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식사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집에서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간편식으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강서양천·동작관악 교육지원청 산하 교육복지 거점초등학교 34개교에서 선정한 법정 저소득가정, 한부모 및 조손가정 중 결식이 우려되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아동 70여명이다. 이들에게는 덮밥, 국밥 등으로 구성된 12종의



BGF복지재단이 서울 34개교에 방학기간 중 결식우려아동들을 위한 1000기의 식사를 지원한다. /BGF리테일

다양한 컵밥 1000기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BGF복지재단은 지난 7일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700개의 식사를 전달하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도 300기를 지원했다.

지원물품은 각 학교의 교육복지

전문가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되며 전달 시 전문가가 직접 거주지에 방문해 아동들의 건강상태와 안전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과 더불어 BGF복지재단의 '집으로 온(溫)밥'도 지속 운영된다.

집으로 온(溫)밥은 다양한 사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결식 아동들에게 헬로네이처의 새벽배송 시스템을 활용해 주말마다 집앞으로 성장기 어린이의 필수 영양분을 고려한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3200개의 따뜻한 식사가 아이들에게 지원됐으며 올해는 형제, 자매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해 총 5000개가 전달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한킴벌리 2021 온라인 그린캠프 참가자 총 400명 모집

유한킴벌리가 2021 온라인 그린캠프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18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참가 모집은 오는 21일까지 유한킴벌리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며 총 4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물론, 숲과 환경을 아끼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친구와 함께 신청하면 선발 확률도 높아진다.

그린캠프에 선발된 모든 참가자에게는 에코펜, 캠프 굿즈, 유한킴벌리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키트를 제공하며 숲터미 과정과 숲 지키기 공약을 실천하면 숲 인플루언서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